

이란산 원유금수조치로 이란 경제위기 심화 전망

1. EU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배경

□ 2011년 11월, IAEA의 핵무기 개발의혹 발표 이후 EU의 대 이란 제재 시행

○ 2011년 11월 IAEA(세계원자력기구)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미국과 함께 EU도 대 이란 제재를 시행하였음.

- EU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원유, 석유제품,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, 운송을 금지하고 이란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 보험 제공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음.

*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4월부터 독일, 스페인, 그리스, 영국, 프랑스로의 원유 수출을 중단한 바 있음.

□ 잇따른 핵 협상 결렬로 인해 7월 1일 예정대로 제재 발효

○ 2012년 6월 18~19일에 모스크바에서 이란과 P5+1¹⁾과의 올해 들어 세 번째 핵 협상이 열렸으나, 합의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EU의 원유수입 관련 제재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.

- P5+1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경우 원유수송선에 대한 EU의 보험 금지 조치 등 일부 제재를 철회하고, 의료용 핵원자로에 필요한 연료 공급, 항공기 부품 수입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으나, 이란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먼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었음.

1) P5+1: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(미국·영국·프랑스·러시아·중국)과 독일



2. EU의 원유수입 제재 영향과 전망

□ 이란 원유수출 40% 감소, 소비자물가상승률 큰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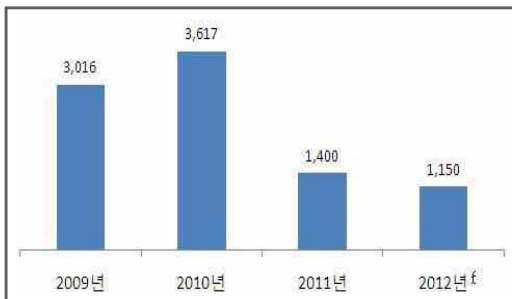
-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 따르면,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이후 지난 6개월 간 이란의 석유수출은 40%가 줄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50만 b/d를 기록하였음.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공식발표치인 22%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.
 - 석유부문이 수출의 80%, 재정수입의 50%를 차지하는 이란 경제에서 원유금수 조치가 미치는 과급효과는 매우 크며, 따라서 EU의 추가제재 발효는 이란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.

□ 또한,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및 외국계 은행 등의 철수로 파장 확대

-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란의 금융환경 및 물품 조달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사업규모 축소 및 철수가 이어져 이란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.
 - 외국기업들은 원유,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광활한 영토를 보유한 이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판단하여 에너지와 건설부문 중심으로 2010년까지 투자를 크게 늘렸으나, 지난 1년 간 BP, Shell 등 세계적인 석유회사들을 포함한 26개 이상의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였음.
 -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해주던 은행들(코메르츠 은행, HSBC 등)과 회계법인들(Ernst & Young, KPMG 등)의 철수도 뒤따르면서 금융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.

<그림 1> 이란 FDI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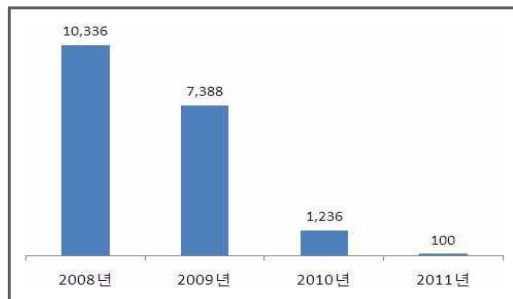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 달러



자료: EIU.

<그림 2> 우리나라의 대 이란 직접투자규모

단위: 천 달러

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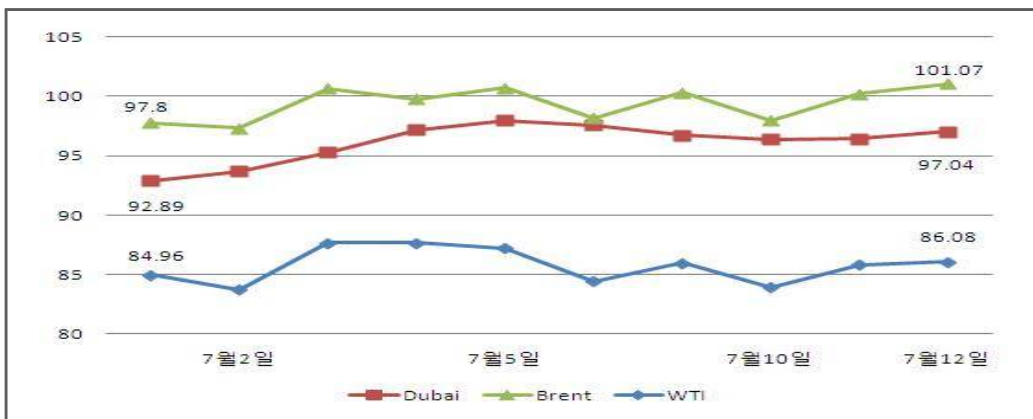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경우,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고, 2011년 5월에 두산중공업과 자회사 밥캣(Bobcat)은 철수를 결정하였음. 신규 공사 수주는 2010년 9월 이후 중단된 상태임.
- 향후 이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서방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진전이 없다면 원유 수출 정상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이란의 경제 상황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큼.

□ 사우디의 석유증산에 따라 유가상승 폭은 제한적

- EU의 제재 발효에 따른 이란의 원유수출 전면 봉쇄로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음.
 - 두바이유는 7월 1일에 배럴 당 92.89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12일에는 4.15달러 상승한 97.04달러를 기록하였음.
-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고조나 호르무즈 해협²⁾ 봉쇄 등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될 경우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.
 - EU의 제재 발효 이후, 이란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, 자국의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로 향하는 유조선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상정하는 등 원유공급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음.

<그림 3> EU의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 이후 국제원유가격 변동 추이

단위: 달러/배럴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.

2) 호르무즈 해협: 아라비아 반도와 이란 사이에 존재하며, 페르시아 만과 오만 만을 연결하는 해협으로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%를 차지하고 해상 수송량의 35%를 차지하는 원유 수송의 요충지임.



- 그러나 유사시 공급확대 의사를 밝힌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으로 수입중단 국가들의 대체 수요가 충족될 예정임에 따라 공급차질로 인한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 - EIA에 따르면 세계석유 여유 생산능력은 2012년 말에 4.2%(380만 b/d)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, 이는 지난 5년 간 평균(3.2%) 보다 높은 수치임.

□ 우리나라, 이란이 제공하는 선박과 보험 활용해 원유수입 곧 재개 전망

- 우리나라는 7월 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. 이는 EU가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인수를 전면금지 시킨데 따른 것임.
 - EU 27개국의 보험사에서 전 세계 선박보험의 약 90%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, 동 조치는 사실상 이란의 원유수출 봉쇄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.
 - 이란이 자국선박을 이용하여 원유를 수송하고 10억 달러 상당의 선박보험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,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원유 수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임.

□ 원유수입이 재개되면 우리 수출기업에는 큰 피해 없을 것

-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될 경우 수출 중단을 우려했던 국내 2,700여개의 이란 수출 중소기업들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임.
 - 2010년 10월부터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수입대금을 국내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그 금액으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 시스템을 운영해왔음. 따라서 원유수입 중단으로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대 이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 - * 최근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량을 감안할 때,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잔고(5조원)는 6개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임.
 - 정부가 이란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, 국제사회의 대 이란 제재가 심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출대금 결제 수단 확보, 대체 시장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.

【박 유 정】